SIAP/ESCAP주최, 아태지역 통계기관장을 위한 관리세미나 참석결과 보고

1. 일시·장소 : 2003. 2. 12 ~ 14 태국 방콕(UN회의센터)

2. 참 석 자 : 통계기획국장 정택환, 통계조정과 5급 하봉채

   * 참가국 :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태국 등 ASEAN국가, 인도, 파키스탄, 스리랑카, 한국, 중국, 북한, 남태평양 섬 국가 등 총 28개국 통계기관대표자

3. 회의주제

   - 리더쉽 및 관리분야 통계능력강화를 위한 세미나
   - 각국 통계청의 당면 이슈와 경험을 공유

4. 회의일정

   - 2. 12 09:00~17:00 통계업무의 위상 강화에 관한 토론
     · 국가통계 프로그램 개발, 통계에 기초한 정책결정 촉진, 통계에 대한 인식강화(홍보)

   - 2. 13 08:30~17:00 각국 통계청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
     · 총조사에서 ICT의 역할 분석 및 평가, 통계청의 ICT선택 및 조달 전략, 사용자 친화적인 데이터의 개발·배포

- 2. 14 08:30~15:00 개발과제(Development agenda)를 위한 통계지표의 생산에 대한 토론

  · 빈곤 측정, 빈곤퇴치, 새천년개발목표(Millenium Development Goals), 1993년 SNA개정 ICP프로그램 참여

5. 아국대표단 활동 및 특기사항

- 아국대표단은 각 주제별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와 대처방안 등을 소상히 소개

- 회의진행이 분임 토의→토의결과 발표→전체토론식으로 진행되어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각국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토론함

- 싱가폴 통계청장(Chief Statistician) Dr. Paul Cheung은 ICP(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)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, 아국 대표는 동 요청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함

  * 아시아 지역의 ICP프로그램은 ADB주관으로 2004년 Round를 추진중 (1993년 Round이후 중단)

  · 한국은 OECD PPP프로그램과의 중복을 이유로 향후 ICP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으나, 싱가폴 대표는 일본·호주 등 OECD국가도 ICP 프로그램에 참석예정이며,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Solidarity를 위해 적극 참석을 권유

- 이번 회의에는 북한 중앙통계국 부국장 이철휘(女)와, 송금순(인구통계과 직원, 통역) 등 2명이 참석하였으나, 자료제출이나 발언 요청이 전무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지역 통계 기관장이 다시 모여 당면과제와 공동관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의하고, 통계기관운영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게 하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으며, 앞으로도 SIAP/UNESCAP이 자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

〈 세미나 주요토의 내용 〉

○ National Statistical System이 하나의 system으로서 작동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 필요(stronger legal basis)

- 분산형과 집중형 모두에 법적 장치 보강은 필요

○ 통계가 정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data requirement를 개발 해야함

○ NSO의 역할은 통계생산자 역할과 분석제공 역할인바, 분석제공기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나라가 많으며, 나라별로 다소 입장이 다름

- 정보 사용자의 수준(Sophistication of users)에 따라 분석의 제공여부 결정되는 경향

○ 통계에 기초한 정책결정을(Evidence-based policy-making)촉진하기 위해 통계청은

① 좋은 이미지와 신뢰성 ② 좋은 관리정책 ③ 고급기술 집단으로서의 좋은 인상을 가져야함

○ 통계청 직원들간의 기술적 교감을 위한 장치(a system of technical interaction)를 반드시 만들어야함

- 기술 스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미나 개최 등으로 강력한 기술적·전문적 역량을 유지하도록 배려해야 함

- Working group, task force등을 활용, 제한된 기술인력간에도 기동성(mobility)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배양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

○ 소지역 기법, 지역별 통계추정 등 기술적 돌파구(Technical Breakthrough)가 필요한 시점

○ 자료수집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배포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
(예) 발표자료의 중요인사에 대한 사전 배포

○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총조사(Census)를 통계청의 brand sales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만함

○ 통계청의 인재유출 현상 대응하여, 필리핀의 경우 직원이 다른 부처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통계청이 “좋은 디딤돌”(good stepping stone)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함

○ 중요한 정보이용자(key-clients)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통계청의 영향력유지에 중요

○ 통계청과 다른 부처와의 협력관계는 National Statistical System 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

○ 홍콩의 경우 통계관련기사가 오보일 경우 신속하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등 media 해명을 열심히 하여 통계청의 이미지를 관리

○ 지역특성을 고려한 별도지역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별도의 지역별 기준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임

○ 인도네시아의 경우 ILO기준으로 unemployment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underemployment를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함

○ 주최측은 ICP(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)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요망

- 주관기관 : ADB
- 1993년 round 이후 중지된 ICP를 2004년 Round에 시작예정
- 의장국 : 호주, 회원국 :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싱가폴, 홍콩

○ 통계기관장은 급변하는 ICT(정보통신기술)에 대해 외부자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

○ 특정 소프트웨어(예: SAS)의 경우, 가격 결정시 사용국 들의 단합으로 가격교섭에 대비하는 방안 검토 필요